

벤투호, 6월 A매치 3연전 개최지 확정

2022 카타르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6월 A매치 3경기 일정이 공개됐다.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한국 축구대표팀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세 팀과 차례로 맞붙는다.

먼저 1차전인 브라질전은 2일(목)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브라질 대표팀에는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를 비롯해 알리송(리버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에서 뛰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하다. 또한 브라질은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전적에서 6전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2차전인 칠레와의 평가전은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칠레는 한국보다 1계단 높은 FIFA 랭킹 28위에 올라있다.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에



서는 조7위로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투로 비달(이상 인테르 밀란), 게리 메릴(볼로냐) 등 유명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과 칠레의 역대 전적은 2전 1무 1패로 한국이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파라과이와는 10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다. 파라과이는 FIFA 랭킹 50위로, 남미예선 8위에 그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역대전적에서 6전 2승 3무 1패로 한국이 앞서있다.

세 경기 모두 오후 8시에 Kick오프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6월 열릴 4차전 A매치 상대와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6월 A매치에 나선 한국 대표팀 명단은 5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30일 파주NFC에 소집돼 발을 맞춘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최지만 “요즘엔 관중이 한국말로 욕을 해요”

K-Drama, K-Pop, 그리고 K-Food 까지. 한류가 미국에 상륙한 지는 꽤 오래됐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미국 내 한류 열풍이 더 거세졌다. 이런 한류 열풍은 한국어 학습 동기로 이어지고, 이제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중들 가운데 한국어를 구사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을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로 시작하는 미국 욕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다. 특히 홈런을 치거나 해서 원정팀이 승리하면 홈팀 팬들의 욕은 배가 된다.” 고 말했다.

최지만은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한류 때문인지 욕을 한국말로 하는 미국 팬들도 하나둘 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팬들이 나에게 영어로 욕을 할 때는 그냥 ‘아, 욕하나 보다’ 하는데 한국말로 욕을 들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서 “팬들이 단순히 욕만 하는게 아니다. 먼저, 듣기 거북한 한국 욕을 한 다음에 한국말로 ‘야, 너 이 말 이해하지’ 라고 확인사살까지 하는 팬들도 있다.” 고 웃었다.

사진=탬파베이 구단 홍보팀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탬파베이 1루수 최지만(31)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메이저리그까지 야구장에서 홈 팬들이 원정팀 선수들에게 욕을 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나도 F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싹쓸이



▲ 토트넘 자체 올해의 선수상 3개를 석권한 손흥민. 사진=tottenhamhotspur.com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토트넘은 15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손흥민은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과 2019~2020시즌에도 올해의 선수상 3개를 석권한 바 있다.

‘토트넘 올해의 선수’ 3회 수상은 구단 역사상 두 번째다. 앞서 로비 킨이 2003년과 2006년, 2008년 수상한 경력이 있다.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은 2회 수상했다.

손흥민은 변리전 후 시상식에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펼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승리를 해서 기쁘고, 상을 받아 기쁘다. 내 꿈이 이뤄졌다. 토트넘의 팀원으로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손흥민은 개인 최초이자 토트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EPL 올해의 선수상을 놓고 무함마드 살라흐를 비롯해 트레트 알렉산더-아널드(이상 리버풀), 재러드 보언(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루, 케빈 더브라위너(이상 맨체스터 시티), 부카요 사카(아스널),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사우샘프턴)와 경쟁한다. 손흥민이 EPL 사무국이 시즌을 결산하면서 시상하는 프리미어리그 4대 부문 상(올해의 선수, 감독, 신인, 골) 가운데 최고 영예인 올해의 선수 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Home Remodeling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